

“잼버리처럼 안되게”...여수세계섬박람회 가을 개최 추진

2026년 9월 5일~11월 4일

개최 기간도 한 달서 두 달로 늘려
변경 계획 행안부 승인나면 확정

2026년 여름 개최 예정이었던 여수세계섬박람회 기획 폭염을 피해 가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당초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이었던 박람회 개최 시기를 같은 해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늘리는 것으로 이달 초 전남도와 협의했다.

이 같은 여수시와 전남도의 변경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예정했던 박람회 기간이 폭염, 장마, 태풍이 몰려오는 시기여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여름에도 여수는 극심한

폭염에 장마-태풍의 영향으로 하루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올여름 전북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폭염 등에 파행을 빚은 점도 감안됐다. 행사 주 무대인 섬 관광에는 여름보다는 가을이 더 낫다는 점도 변경 이유가 됐다.

한 달로 예정한 대회 기간은 두 달로 늘어났다. 365개 여수 섬 관광을 위해서는 한 달이 너무 짧은 의견을 종합해 한 달로 예정한 대회 기간도 두 달로 연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잼버리 파행이후 지역사회의 우려와 날씨, 기후, 흥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시민들이 순천시의 '맨발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1일 1만보 걷기' 체중·체지방 감량 효과 '톡톡'

1년간 1940명 참가

우수 참가자 100명 선발

순천시가 진행한 '1일 1만보 걷기' 한 해 동안 1940명이 참가했다. 순천시 보건소는 '시민 건강걷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최근 '시민 걷기왕 선발대회'를 열어 참가자 1940명 가운데 우수 참가자 100명을 선정했다. 1일 1만보 걷기 참가자 가운데 체지방과 체중을 가장 많이 줄인 100명이 여기에 뽑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120만보 이상 걷고, 매일 1일 1만보 걷기를 10일 이상 참여했다. 순천시 보건소는 시민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순천시 걷는 도시입니다'를 내걸고 걷기 기부 캠페인, 매일 1일 만보 걷기 도전, 맨발 걷기 교실, 웰니스 노르딕워킹 교실, 100일 맨발 걷기-노르딕 워킹 체험단 등을 진행해왔다. 선발대회 참가자들은 순천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에 가입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받았고, 비대면으로 걷기 임무를 수행했다.

선정된 시민 100명은 그동안 체중을 총 312kg, 체지방은 236kg 줄였다. 1등을 기록한 참가자는 체중 13.5kg, 체지방 10.5kg을 줄였다. 5kg 이상 줄인 시민은 18명이었다. 조은별 순천시 건강증진과 담당은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을 7개월간 지속해서 실천한 시민들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걷기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생활의 중심으로 누구나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군수 김순호·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마을 활동가'에 참여하는 17명에게 위촉장을 전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에 마을 활동가 떴다...17명 첫 위촉

경로당 등 주민 불편 해소 활동

구례군이 마을 고령 주민의 손발을 자처하는 '마을 활동가' 17명을 올해 처음 위촉, 운영한다. 마을 활동가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구례군은 퇴직 공무원과 노인 복지관 활동 지원가, 자치위원회, 부녀회 출신 등 17명을 지난 14일 마을 활동가로 위촉했다. 남성 2명과 여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40~60대 주민이다. 고령 주민의 전산 업무를 처리해주기 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여부를 살폈다. 이들은 이날부터 앞으로 2년간 마을 활동가 임기를 채운다. 마을 활동가는 구례읍 3명과 7개 면에 2명씩 모두 17명이 활동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 세 시간씩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고령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 달 30시간가량 일한 임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구례군은 이들의 인건비로 한 해 예산 6100만원을 확보했다.

마을 활동가는 어르신이 농촌 복지 혜택을 찾고 읍·면과 군청을 잇는 다리 역할도 한다. 구례군의 복지 정책, 농업인 정책 등을 소개하고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지원사업을 대신 신청해줄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 자원과 연계해주시기도 한다. 이 밖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고지서 반납 처리 등 역할이 다양하다. 마을 활동가가 들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은 매달 구례군수에 전해진다. 석 달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열어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구례군 측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마을 활동가 제도의 운용 상황을 분 뒤 인원 확대 등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초고령사회 진행에 따른 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정보가 부족해 온라인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 활동가는 구례군 노인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펼쳐진 1.2km 구간 황톳길 정비를 최근 마무리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 백운산 맨발 산책 '황톳길' 정비

주말 500명 넘게 방문 인기

전국 '맨발 걷기' 열풍에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산책길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안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길 '황톳길'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운산 황톳길은 주말 500명 넘게 찾는 인기 산책길이다. 1.2km 펼쳐진 이 길은 광양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맨발 걷기 장소이다. 산림유 휴양림이 누릴 수 있어 인기를 더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황톳길에 신발장과 해충기피제, 먼지털이용 에어건(Air gun)을 설치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백운산 149만ha에는 오는 2025년까지 산림복지지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임경암 광양시 휴양림과장은 “이번 황톳길 정비를 통해 입자가 고운 질 좋은 황토를 덧씌우는 등 맨발 걷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었다”며 “시민들이 백운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황톳길을 걸으며 일상에서의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한전 등 3개 기관과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협약

여수시가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여수 순환유동충 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보일러를 대상으로 정부 국책과제로 추진 중인 '발전용 순환유동충 보일러 암모니아 20% 혼소기술 최적화 및 실증' 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암모니아 혼소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와 다른 연료를 혼합해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정부는 올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및 발전비중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소-암모니아를 발전연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제는 한국남동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여수 1, 2호기 및 한국남동발전의 삼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190억 원이 투입돼 석탄화력 발전소 암모니아 20% 혼소발전 실증사업이 펼쳐진다. 지자체와 연구기관, 산업계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파일럿 테스트 및 인프라 구축, 실증 후 상업운영까지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무탄소 전원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SNS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홍보단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SNS 서포터즈 발대식

곡성군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단을 꾸렸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레저문화센터·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1기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곡성 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곡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보단은 위촉장을 받고 사전 교육을 받았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SNS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통시장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린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의 독특한 먹거리, 문화,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 곡성군 측에 수요자 관점에서 현장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최용환 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앞으로 SNS 서포터즈들과 맛있는 먹거리, 매력적인 상품부터 훈훈한 미담까지 공유하며 재밌는 기차마을 전통시장의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흥군 '드론 실증도시 구축' 성과 공유...배송 조기 상용화 모색

이들간 컨소시엄 참여기관 워크숍

고흥군이 지난 13·14일 양일간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워크숍을 개최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증을 추진한다. 군은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피앤유드론, 천풍, 날다, 마린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3월 처음으로 드론 실증도시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군과 참여기업은 드론을 이용한 유·무인도 사회 안전망 강화와 유해조수 퇴치, 긴급 물품배송 실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동안 열린 워크숍에는 컨소시엄 참여기관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해 8개월 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공유하고, 최종보고서 작성을 논의했다. 또 올해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장거리 긴급 물품배송 등 각종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방안과 실증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녹동항 드론소와 고흥 드론-

UAM 박람회 개최, 고흥형 도심항공교통 관광 향로 개설사업, 미래 비행체 비행안전성능 모니터링 기반 구축, UAM(도심항공교통) 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등을 추진해 미래 첨단 항공산업을 선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드론 등 첨단항공산업을 지역의 근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최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고흥이 드론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